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방향과 방법들

2012.11.22. 예술공간돈키호테

자료집

전남문화예술재단

2012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역교류세미나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방향과 방법들

목 차

모시는 글/행사 개요	4
의문들	6
백종옥 (익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사례발표1. 광주 미테-우그로	10
조승기 (광주 미테-우그로 디렉터)	
사례발표2..군산 하늘아래 예술마을	30
이상훈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디렉터)	
사례발표3. 1839 사진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스	38
지성배 (순천 상상문화발전소1839 디렉터)	
사례발표4. 2012레지던스 프로그램 <기억과 증명>	50
이명훈 (순천 예술공간돈키호테 큐레이터)	
부록	78
국내 레지던스의 현주소를 묻다(1),(2)_묘책	

모시는 글

전남문화예술재단 지역협력형사업 워크숍 세 번째 마당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역교류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순천지역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단체들과 함께 “지역 레지던스 방향과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교류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 11.

전남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준영

■ 행사개요

행사명 : 2012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역교류 세미나

주 제 :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방향과 방법들”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6시

장 소 : 예술공간 돈키호테 (순천시 금곡길 33, 2층)

■ 행사목적

-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에 관한 이해와 담론형성
- 지역간 문화예술 관계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자 교류
- 지역 사회에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 제안

■ 세부 프로그램 계획

1부 주제토론

“타 지역 예술가 레지던스 사례발표 및 질문들”

일시 : 2012년 11월 22일(목) pm 2:00~4:00

장소 : 예술공간 돈키호테

사회 : 박혜강(예술공간 돈키호테 디렉터)

내용 :

- 주제발표(1) (30분)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의 문제/백종옥
- 사례발표(1) (30분) 광주의 레지던스: 미테-우그로를 중심으로/조승기
- 사례발표(2) (30분) 군산의 레지던스: 군산여인숙레지던스를 중심으로/이상훈
- 참가자 종합토론(20분)

중간휴식(10분)

2부 제안토론

“순천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제안”

일시 : 2012년 11월 22일(목) pm 4:10~6:00

장소 : 예술공간 돈키호테

사회 : 박혜강(예술공간 돈키호테 디렉터)

내용 :

- 지정발표/토론(20분) : 상상문화발전소 1839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성배
- 지정발표/토론(20분) : 예술공간 돈키호테의 레지던스프로그램/이명훈
- 지정토론(20분) : 허명수(순천, 작가)
- 발표 후 종합토론

6:00 자리 정리 후 간담회

의문(疑問)들

* 대홍수

……언제부터였을까?

우후죽순사시사철 축제들, 버라이어티메가 박람회, 여기도 저기도 비엔날레, 이왕이면 다홍치마, 미술시장 그리고 전당, 미술관, 아트센터, 문화센터, 체험교실, 갤러리, 대안공간, 창작촌을 지나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뿐인가? 예향-명품-문화-예술도시들의 문화수도는 어떨소? 아트빌리지, 아트벨리, 예술촌, 예술의 거리로도 안되겠소, 새마을운동 하듯이 미술로 마을도 뒤덮고 시장도 뒤덮고 전국을 뒤덮어 버리세~ 갈수록 ‘관공예술’ 사업 ~ 문광부, 지자체,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들의 욕망, 욕망, 욕망 ~ 오만가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들 ~ 한류, 케이팝, 케이아트, 강남스타일 만세~세 계정복 만만세~~얼썬 ~~!!!

우리가 사는 한반도 남단이 드디어 단군 이래 최고의 문예부흥기에 접어든 것일까?

이렇게도 많은 문화 행사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지구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 경기불황 중에도 엄청난 예산들이 문화예술 행사들에 쏟아 부어지고 있으니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강국이요, 우리 국민은 문화예술로 먹고 살게 된 것인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술가들을 위한 자상낙원이 도래했던 말인가? ‘문화’ 와 ‘예술’ 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엔 어디서나 ‘문화의 세기’ 와 ‘문화산업’ 으로 시작해 ‘문화콘텐츠’, ‘브랜드’, ‘마케팅’ 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예술로 먹고사는 도시 ‘빌바오’ 로 결론을 맺는다. 게다가 ‘문화향수권’, ‘참여와 소통’ 은 물론 ‘문화정책’ 과 ‘예술에 대한 지원’ 및 ‘예술인복지’ 까지 더하면 ~~금상환상첨화!!!

세상에 이토록 ‘복된 소리와 잔치’ 들이 홍수처럼 넘쳐 나는데, 왜 이다지도 공허하단 말인가? 여기에서 요란한 현상들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와 자료들을 자세히 들이댈 필요도 없다. 분명한 점은 우리가, 아니 바로 내가 모종의 급류 속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느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유감스럽게도 나 스스로가 세태를 조장하는 처지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민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말해야만 하지 않을까?

* 의문들

반복되는 문화현상들을 경험하다보면 의문들이 퇴적된다.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몇 가지 의문들을 짚어 보겠다.

1. 지자체는 블랙홀인가?

우리나라의 문화현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어떤 제도 또는 프로그램을 소위 ‘중앙’에서 만들어 여러 지역으로 뿌려주는 방식이다. 각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프로그램보다 문광부 혹은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기획사업을 현장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자의반 타의반 하청업자나 소모품 노릇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1995년 민선1기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는 식욕이 왕성한 공룡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앞에서 열거한 정신없는 문화적 현상들 중 상당수가 실적주의와 치적주의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점점 모든 문화현상들을 빨아들이면서 문화기획자 노릇까지 하는 지점에 와 있다. 지자체는 문화예술생태계의 블랙홀인가?

2. 무(無)지원 무(無)예술?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던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예술활동을 했던가? 최근의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의 지원금 없이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예술행사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성급한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더 많은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모든 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여러모로 지원이 된다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원금을 받아야만 전시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비활동 모드가 되는 상황이다. 지원금의 성격이 단기적, 단발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각 예술가의 연간 활동방향이 이 지원금의 수혜여부나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데 결국 크게 보면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지원금에 의해 예술현장의 지도가 변하거나 그려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 이젠 지원금이 없다면 예술활동은 동면에 들어가야 하는가?

3. 예술도 실적주의로?

몇 해 전 레지던스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외국 작가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너무 피곤하다. 행사들이 많아서 차분히 작업할 시간이 없다.” 이런 푸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전히 우리나라 레지던스 프로그램들 중 상당수가 입주 작가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전시회는 기본이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외에도 시민, 지역주민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더 추적해 들어가면 문진금의 지원조건이 버티고 있는데 지원기관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러저러한 심의기준과 평가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세밀하게 밝히고 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열심히 활동하는 공간이나 예술가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지원 서류를 제출할 때부터 분명히 밝혀야 하고 사업종료 후엔 성과와 실적으로 보고해야 할 일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입주기간 동안 작가들을 조용히 작업만 하게 내버려 두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행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지원을 받으려면 그만큼 요구조건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조건 없이 지원만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맞는 것일까? 아니면 지원금 보기를 돌같이 하며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까?

좌우간 위의 세 가지 질문에 해당하는 현상들의 공통점을 똑바로 보자. 바로 ‘행정이 예술의 현장을 규정, 조정, 재단 한다’ 는 것이다. 이 점이 현 단계 문화예술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지원금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꿈꾸고, 발언하고, 행동했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 예술가들의 꿈과 발언과 행동이 점점 야생의 사고와 감각을 잃고 누군가에게 가족처럼 사육 되고 길들여지는 것 같아서 우려와 회의가 든다.

* 방주(方舟)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체와 교감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감행하였다.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거듭해서 이제 어느 곳에서나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목격할 정도가 되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갖가지 문화와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행사들이 해마다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작금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오히려 레지던스라는 공간과 시간은 조용한 ‘방주’ 이길 바란다. 느리고 고독하게 내면을 성찰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묵묵히 견뎌 내는 곳이라면 레지던스 공간은 분명히 하나의 ‘방주’ 라고 할 만하다. 물론 고독에 매몰되어 세상을 등지고 작업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성찰에도 자양분이 필요하다. 그 자양분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자 측에서 입주 작가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작가들은 작업 과정에 대해 발표하거나 비평가들의 평론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객관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비평가와의 만남 정도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더욱 심화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작가가 관심을 가진 주제나 작가에게 필요한 철학적, 학문적 기반을 분석하여 관련이 있는 인문, 자연, 사회과학 전문가들과 만나도록 주선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작가들의 사유에 깊이를 더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작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전문가들을 연결시켜 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면 각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성을 살리는 것도 좋겠다. 외국작가들과의 교류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지역 특성에 알맞은 공공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해도 의미 있겠다. 그리고 미술시장에 진입하려는 작가들만 선발하여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돕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유익할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주제를 내걸고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이 입주하여 함께 작업해 나가는 방식의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상상에 불 만하다. 그 밖에 다양한 방식들이 가능할 것이고 함께 연구할 일이다.

* 마치며

최근에 읽은 마루야마 겐지의 산문집 ‘소설가의 각오’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 소설가란 얼마만큼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의해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것도 고독을 사랑한다든가, 고독에 굴복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고독 그 자체를 직시하고, 그것과 맞붙어 거기서 튀어나오는 불꽃으로 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는 문학의 광맥을 파낼 수 없죠 ……」.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매우 촌스럽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시절이다. 하지만 ‘예술’이 아닌 ‘예술계 언저리’만 맴돌 생각이 아니라면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지 않는가? 요란한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곳, 고독을 응시하는 곳,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곳, 예술의 광맥을 캐내는 곳……,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말자.

(백종옥 2012.11)



사례발표 1. 광주 미테-우그로

발표 : 조승기 (미테-우그로 디렉터)

Mite-Ugro

지역의 작가들과 광주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이 모여 만든 대인예술시장 내 비영리 복합문화공간인 미테(MITE)-우그로(Ugro)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전, 세미나, 워크숍,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지난 4년간 자생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제도권 내에선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신진작가 지원과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 장르의 다원예술 분야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개발차원의 예비큐레이터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폭넓은 작가 홍보 및 발전방향을 위해 해외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대안공간 및 작가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교류를 진행한다. 두 개의 전시 공간, 카페, 게스트하우스, 아카이브 도서관, 스튜디오는 광주의 구도심 내 전통시장인 대인예술시장에 위치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

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의 독립공간과 연계, 아티스트 밴드, 아시아 음식을 소재로 한 창작, 사운드아트 등 협업중심 작가거주 창작프로그램.

전시

신진작가 창작지원, 기획전, 해외 교류전

비평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지속발전 가능한 비평, 토론의 장을 꾀함

참여작가 스터디 및 작가 비평프로그램 진행

지역작가, 예비기획자와 함께 하는 워크숍

광주 소재 대학교 미술이론, 큐레이터학과, 예술관련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큐레이터의 활동 경험지 공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루어내는 작업 현장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예비 작가와 큐레이터에게 다양한 방향 제시

미테-우그로



Art space
(MITE)

Community space
(UGRO)



Guesthouse ZaZa

Mite-Ugro Archive





**'Mite-Ugro' Studio
(Gwangju)**



**'zone D' Studio
(Bangkok)**



'Mite-Ugro'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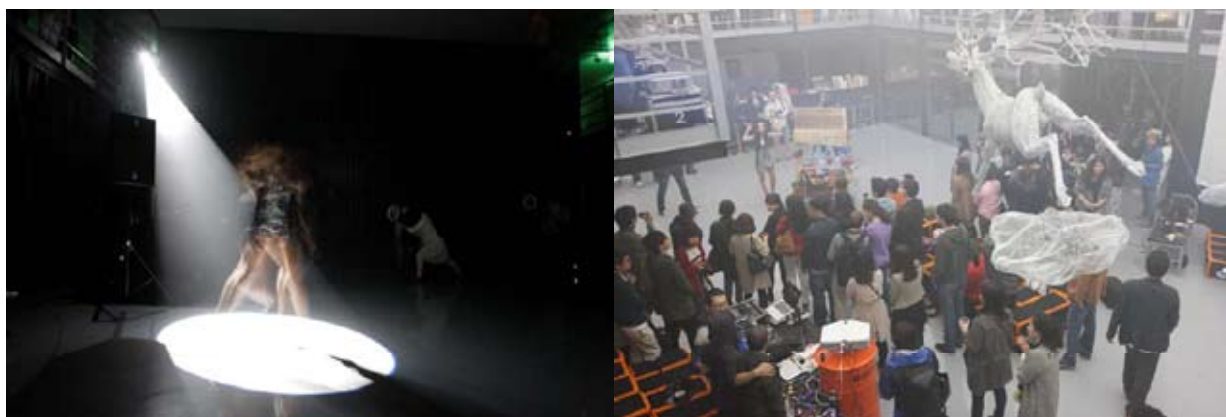




마C :예술무당 프로젝트



























사례발표 2.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발표 : 이상훈 (작가,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디렉터)

군산 하늘아래 예술마을 - 동국사 가는 길

지역의 새로운 소통의 문화공간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근대 역사문화가 짙게 담겨있는 군산 월명동 동국사 가는 길. 이곳은 군산 옛 도심의 적산가옥과일본인 창고 등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옛 모습 그대로 방치되었던 이곳을 2010년부터 예술과 소통이 숨 쉬는 공간으로 창조되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다.

특색 있는 거리와 공간으로 꽃을 피우다

이곳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 간혹 사람이 머물다 가는 여인숙(旅人宿)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지만 뜻을 풀이하면 여(與) 둘 이상 이, 인(隣) 이웃이, 숙(熟) 무르익다 즉 “여러 이웃이 모여 뜻을 이루다” 라는 그윽한 뜻이 있다. 1960년에 지어져 2007년까지 실제로 여인숙을 운영됐던 곳이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이곳을 군산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 이상훈 대표와 창작 레지던시 여인숙 서진옥 큐레이터와 함께 새롭게 창조되었다. 2010년 리모델링 시작으로 2012년 10월 지금까지 2년 넘게 소통과 예술이 숨 쉬는 창조적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 ‘여인숙’ 이라는 간판과 예전부터 유명한 여인숙 탓에 일부 시민들이나 만취객, 여행객들이 ‘방을 달라’ 고 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

예술이 모여 소통을 나누다

2010년부터 시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중심이 아닌 이젠 군산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와 타 지역 작가와의 창작교류를 통해 지역미술과 문화 창작의 발전을 꾀하는, 지역과 함께 하고 소통하는 힘 있는 레지던시로 발전했다. 올4월엔 전국의 40여 개의 비영리 전시공간과 창작스튜디오가 함께한 <파주 AP페스티벌>참가, 5월엔 95세의 서양화가 하반영 선생님과 함께한 지역교류 프로그램 <동행展>, 6월엔 지역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과 함께한 멘토&멘티 형식의 <멘탈붕괴展>, 7월엔 지역 주민, 지역작가들과 함께한 오픈 스튜디오 <그곳을 기억하다展> 8월에는 타 지역 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으로 대전지역 스페이스 씨 레지던시 작가들과 1박2일 동안 지역을 읽으며 함께한 <다중 적 현상展>, 9월에는 찾아오는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으로 삼성애육원 학생들과 3주 동안 레지던시 작가 분

들이 선생님이 되어 문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10월에는 우리지역에서 40년 넘게 창작활동을 하신 예술인들을 모시고 장르를 떠나 다양한 예술의 혼을 맛보는 <군산의 혼을 찾아서展> 전시를 하였고, 11월에는 지역 청년 작가 교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곳엔 레지던시 프로그램전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문화 대중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창작 레지던시 여인숙의 슬로건인 <Take Made> “세상을 보고 새롭게 이야기 하다” 라는 말처럼 지역읽기, 지역문화 소비와 소통, 그리고 전문적인 창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땀 한땀 예술의 손길이 가득한 거리로 “동국사 가는 길” <2012년 공간문화 대상 선정>

여인숙은 창작문화 전시 공간이자, 레지던시 공간이다. 하지만 이곳에선 주민과의 교류사업도 활발히 펼쳐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인숙 주변 동국사 가는 길 정비 사업이다. 2010년부터 여인숙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지역작가, 지역주민들이 낡고 허름하고 제각각이던 간판들을 특색을 갖춘 멋진 간판으로 바꾸었다. 동네 벽은 스토리텔링을 입힌 멋진 벽으로 바뀌었다. 빨래터, 아기 업은 소녀 등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모티브로, 옛 군산의 마을을 상상해 그려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거리엔 이동식 화단도 조성돼 눈이 즐겁다. 이런 변화와 함께 여인숙은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제정하여 지역사회 전통문화와 유산을 문화공간으로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새롭게 확립한 활동과 장소, 한국문화의 특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상생활 속의 시민공간으로 재창조한 활동과 장소에 대해 평가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모색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한 사례 대상으로 군산 창작 문화공간 여인숙 동국사 가는 길 이 2012년 공간문화 대상에 선정되어 10월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말이면 수 백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마을에는 안내 게시판도 생겨났고, 예술창작으로 정비를 통해 완성된 깔끔함이 돋보이는 입간판과 빨강우체통도 먼저 시선을 끈다. 그리고 동국사 가는 길 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마을의 쉼터이자 햇살 좋은 카페인 ‘36°’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련돼 젊은이들의 발길이 오고가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을 다양한 방향으로 토론했을 수 있는 대화의 창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상훈 창작 문화공간 여인숙대표, 서진옥 창작 레지던시 여인숙 큐레이터의 힘 있는 열정과 여인숙 작가들, 지역작가들 마지막 지역주민의 땀 흘린 노력으로 거리는 쓰레기가 사라졌고 감동 가득한 작품들이 가득한 동국사 가는 길이 되었다. 어두컴컴하던 동국사 가는 길을 예술가의 한땀 한땀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또 다른 유토피아를 동국사 가는 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839 사진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스

2012. 4. 10 ~ 2012. 12. 30



사례발표 3. 순천 상상문화발전소1839

발표 : 지성배 (작가, 상상문화발전소1839 디렉터)

1-1. 기획 의도

개요

-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과 발표를 통해 지역성을 극복하고 지역간 문화예술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함.
- 예술가들에게 예술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실험적인 예술창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지역 주민과의 연계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함.

- 1839 사진창작 스튜디오는 순천만이라는 지역의 장소성으로부터 사진문화예술이 꿈꾸고 싹티울 근거를 마련하고, 순천만을 찾는 많은 여행객들과 순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지역 예술에 대한 시각을 극복하고, 지역 예술 소통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지역을 화두로 작가는 실험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지역의 사진역사 아카이브 작업, 시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영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생활사진가들과 함께하는 사진투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이 행위들은 사진을 매개로 연계되는 교류와 교감을 통해, 순천과 순천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사회적인 태도를 관철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줄 것이며,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고 특성을 가지지 못했던 도시의 현실을 직접 느끼고 경험해나가면서 도시의 시대적, 역사적 정체성을 묻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소박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1/20

1-2. 기획 의도

기대 효과

- 현대 예술의 중심에 서 있는 사진은 현장성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기동성을 발휘함.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이슈 문제인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사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관찰과 통찰을 통해 지역성을 극복.

- 레지던스의 효과는 작가육성과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한 모티브임. 본 사업을 통해 구호에 그쳤던 대중과의 소통을 실현하고 참신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담보하여 관객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창작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양질의 창작을 생산 기대.

- 입주작가들의 창작 결과물은 지역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실행단계인 상상문화발전소는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의 정보 주체인 시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

2. 프로젝트 진행 - 남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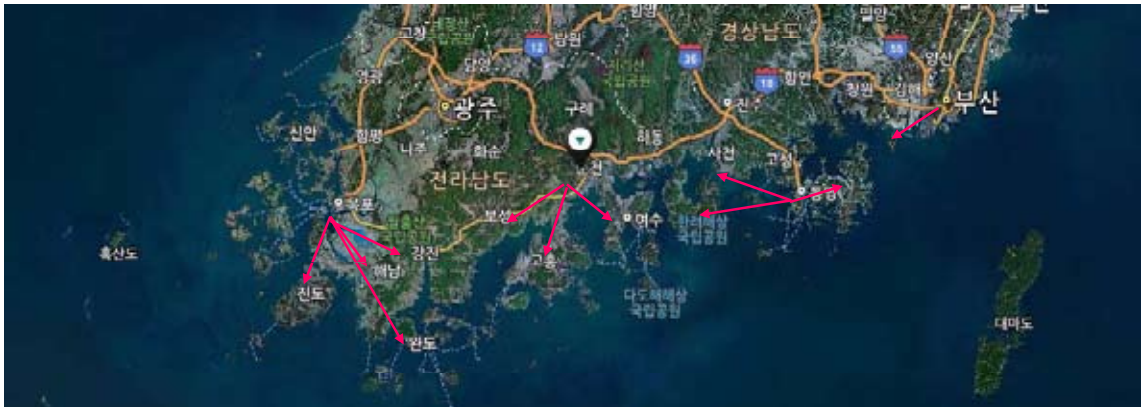
남해안 사진 프로젝트는

우리 땅으로부터 바다에 잇닿은 남해 연안 지역의 인문적, 지리적 가치를 재조명해 사진으로 기록하고자 함.

이는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과제를 안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사진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사진의 정통성을 찾는 데 그 의미를 둠.

또한 디지털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진의 질적 가치 상실과 한국 사진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태도를 가지며, 우리의 전통에 근거한 사진미학과 방법론의 창출을 모색해 나갈 것임.

작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문화예술 전반에서 사진의 선도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세계 사진의 흐름을 냉정하게 소통하고 호흡하며 미래 한국사진을 이끌어갈 대안적 방법을 찾으려 함.



2012 KOREA SOUTH COAST PHOTO PROJECT

3/20

2-1. 참여작가 - 이돈기



순천만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2년부터 추진해온 골재채취 사업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20

2-2. 참여작가 – 이동근



대중소비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여가의 모습에 관한 사진적 표현이며 장소는 부산의 대표적 해수욕장들이다. 장시간의 노출을 통하여 현실적인 일상의 모습을 비현실적으로 공간으로 치환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의미의 확장을 꾀하였다.

5/20

2-2. 참여작가 – 지성배



전망대를 통해 바라본 남해안의 풍경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남해안 권역에 걸친 지역의 지리문화역사 지형을 살피며 작업을 하고 있다.

6/20

2-4. 참여작가 – 차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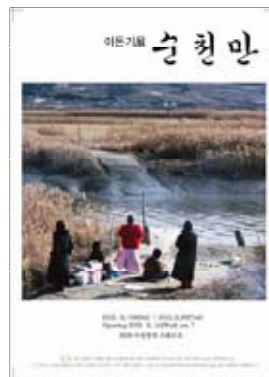
자연을 소비하고, 인간의 노동을 소비하고, 인간의 순수함마저 소비하는 크나큰 재앙으로 느닷없이 우리 곁을 엄습한다. ‘목적 없는 참여에 우리는 언제까지 무감각해야 하는가?’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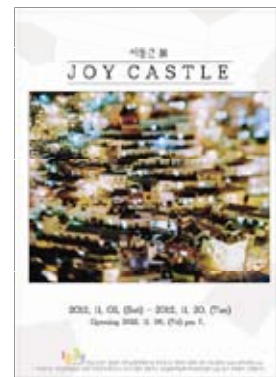
2-5. 작가 프리젠테이션 및 릴레이 전시



차진현 전



이동기 전



이동근 전

8/20

3. 프로젝트 진행 - 순천만

순천만 안쪽의 자연 마을들을 들여다보며,
평범하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고 특성을 가지지 못했던 마을의 2012년의 현재를 기록하고자 함.

또한 2013순천만 정원 박람회,
도시농촌의 개발 등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상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미래에 대한 소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9/20

3-1. 참여작가 - 이돈기 양충열 정보식 정원목 윤용운 홍승용



2012 SUNCHEON BAY PHOTO PROJECT

10/20

3-2. 순천만 – 순천만의 마을들 1 _ 거차 구동 노월 농주



11/20

3-3. 순천만 – 순천만의 마을들 2 _ 대대 장산 우명 창산



12/20

3-4. 순천만 – 순천만의 풍경 _ 동천



13/20

3-5. 순천만 – 순천만의 풍경 _ 정원박람회부지



14/20

3-6. 순천만 - 순천만의 풍경 _ 자연



15/20

3-7. 순천만의 풍경 _ 별



16/20

3-8. 순천만 – 순천만 사람들



17/20

3-2. 순천만 – 여행객들



18/20

4. 상상문화발전소 - 소개

- 상상문화발전소는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 교육, 출판,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창작과 문화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상상문화발전소는 상상력을 중요한 사진예술 디자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 기획과 과정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 합니다.
- 상상문화발전소의 실천은 사람과 삶, 예술과 일상, 나와 사회의 끊임없는 관계잇기를 통해 의미 있는 틈새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갤러리 1839(순천대앞 갤러리)



1839 사진창작 스튜디오(순천만갤러리)

19/20

4-1. 상상문화발전소 -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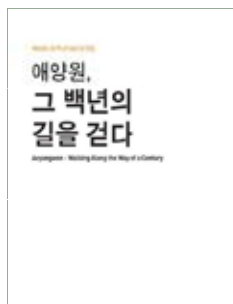
세미나



사진교육



전 시



출판 디자인



공 연

20/20

감사합니다

2012
artspace Donquixote
RESIDENCE program

기억과 증명
memory
and
evidence

05.-12. 2012

사례발표 4. 2012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억과 증명〉

발표 : 이명훈 (예술공간 돈키호테 큐레이터)

초청 아티스트: 이항준(영상), 변재규(사진영상), 서경린(무용안무), 서진화(매체교육), 노은실(판소리) | 프로그램: 창작지원 및 작품발표, 지역현장답사 및 공동리서치, 매체 예술교육, 비평지원, 지역 레지던스 초청세미나 | 총괄기획: 박혜강, 큐레이터: 이명훈, 어시스트: 윤은별, 박종도 외

ARTSPACE DONQUIXOTE
<http://art1013.net>
전통 유산의 공백으로 DPs, moods, sounds

공식후원 : 한국문화재단 후원회, 전남문화재단, 전라남도
지역 협력 및 후원 : 양성문화재단(호남), 순천시영성미디어센터, 순천 기획의 도서관, 피플미술관, 지역기반 예술거리를 지원하다, 순천문화재단(호남), 순천문화재단(호남), 순천문화재단(호남)

2012

artspace DONQUIXOTE
RESIDENCE program

기억과 증명

memory and evidence

1. 기획의도

1. 지역 예술공간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아티스트 레지던스의 모색

그 동안 순천에서는 창작공간, 창작스튜디오 등으로 불리 우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례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술공간 돈키호테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행해 봄으로써 레지던스를 통한 예술가의 교류 활성화, 지역적 문맥의 창작 지원 및 협업을 통한 공동체 예술의 가능성이라는 틀에서 레지던스를 제안해 본다.

2. 돈키호테는 지역 도시와 지역 주민이 경험한 지난 20세기의 역사적, 문화적 사건을 공간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의 성과들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예술작업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레지던스 예술가들은 돈키호테와의 공동의 지역 연구자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세르반테스가 시대비판을 위해 매번 실패하는 몽상가 ‘돈키호테’를 창조했듯이 예술공간 돈키호테는 당대를 매번 다르게 보려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몽상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 어떤 꿈을 품고 있다는 말이다. 예술공간 돈키호테 레지던스는 망상가가 아닌 몽상가들의 거점이 되어 그 꿈들을 나누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4. 돈키호테의 레지던스는 지역 리서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적, 미학적 장소성을 재발견하면서 그 가치를 예술작업으로 증명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기억과 증명>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방식을 표현한 것으로 참여 예술가가 과거의 시간과 공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기억들을 찾아 그 기억과 연결되는 이미지, 언어, 몸짓, 소리, 물질을 컨템포러리 아트의 방식으로 다루는 일련의 프로젝트형 레지던스라 할 수 있다.

2. 레지던스 사업의 필요성(배경)

- 순천 원도심에 위치한 예술공간 돈키호테는 2010년부터 컨템포러리 아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는 물론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대해 왔음.
- 시간이 흐를수록 단발적인 초청 형태가 아닌 연속적, 지속적인 초청방식 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같이 일정 기간 체류를 통한 상호교류 또는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 지역의 맥락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 또는 공공건물을 창조적인 레지던스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타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순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 있었음.(지자체에 지역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레지던스 제안)

3. 레지던스 사업의 목표(2012년)

- 타지 예술가와 순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의 의미 공유를 통한 새로운 창작 동기부여 및 창작지원
- 예술공간 돈키호테식 레지던스 프로그램 제시(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운영경험 쌓기)
- 지역 문화예술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에 대한 관심유발 및 지역모델제시

4. 레지던스 프로그램

3-1 <기억과 증명> 프로젝트 : 이행준, 변재규, 서영란+노은실

3-1-1 이행준 프로젝트 (가제)<Dream Machine> : 다큐멘터리작업 *12월 17일 작품발표 예정

3-1-2 변재규 프로젝트 (가제)<寫眞測量> 영상작업 *12월 1일 작품발표 예정

3-1-3 서영란+노은실 프로젝트 (가제)<삼천포로 튀다> 리서치작업 *11월 24일 발표 예정

3-2 지역연계 프로그램 :

3-2-1 지역현장답사-리서치 : (5월~9월)

- 참여 예술가의 작업 구상에 필요한 지역 현장답사 및 리서치 지원
- 순천 지역 가이드 : 돈키호테에서 제공
- 관련 자료 수집 및 리서치: 각 참여 예술가-돈키호테 협업

3-2-2 매체예술교육 프로그램 : (7월)

- 참여 예술가가 지역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강사 : 이행준+서진화
- 교육내용 : 초기 영화 장치 제작 워크숍(총 4회 계획)
- 교육참가 : 기적의도서관(초등학생), 지역기반예술가그룹사이-다(지역작가), 피플미술학원(고등학생)

3-3 비평지원 프로그램 :

* 참여 예술가 프리젠테이션 : 5월~6월 개별일정으로 진행

3-3-1 작가연구 및 작업과정 모니터링 : 돈키호테 자체 진행, <묘책>발행 (총 4호 발행)

3-3-2 작가-비평가 매개 : 작가 당 외부 비평가 소개, 보고서에 작품 비평문 발표(12월~1월)

3-4 부대행사 : 지역 레지던스 기획자 초청 세미나(11월)

- 주제 : 지역 예술가 레지던스의 방향과 방법들
- 공동주최 : 예술공간돈키호테, 상상문화발전소1839 *전남문화예술재단 측에 공동주최 제안
- 주제 및 사례 발표 : 광주지역, 군산지역 레지던스 기획자
- 지역사례발표 : 예술공간돈키호테, 상상문화발전소1839
- 세미나 자료집 제작배포



이행준

〈기억과 증명〉 프로젝트_PART 1

Dream Machine



1. 순천만 화포 갯벌에 16mm/35mm 필름묻기
2. 2개월 후 수거
3. 2개월 동안 자연발화된 필름의 상태





순천의 극장/사진관 리서치

1. 순천 드라마세트장 촬영
2. 서남수 화가 인터뷰(극장간판 관련)
3. 순천 화가 3인 초청 인터뷰(극장간판관련)





1. 순천 극장문화사 관련 인터뷰
(구 코스모스 극장, 사진관 운영)
2. 순천 제일사진관 방문 촬영, 인터뷰
3. 순천 럭키사진관 방문 촬영, 인터뷰





순천의 문화공간을 찾아서

1. 원도심 중앙동에 위치한 <장미빛 인생> 은 신도심이 생기기 이전 9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음악카페이다.
2. 신도심에 위치한 <엘비스> 촬영, 인터뷰: 음악다방DJ의 이야기를 듣다.



영화를 찾아서

조문진 감독 1978년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은 순천 독실마을(김부자집)을 주 배경으로 촬영됐다.

* 배우 방희(어머니분), 하명중(사랑방손님 분), 이효정(옥희분), 김상순, 도금봉이 출연함

* 영화에서 당시 독실마을 뒷산에서 바라본 순천의 모습과 김부자집 등의 모습이 컬러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음

- 이 영화의 필름 발굴을 통한 상영회 제안(한국영상자료원, 순천시)

- 순천시에서 2013년 사업예산지원 확정

이 상영회는 단순히 한국 고전문학과 영화의 감상이라는 틀을 벗어나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1970년대 말의 순천의 모습과 현재에도 남아있는 김부자집, 양복등과 같은 사라져가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 모습과 과정을 예술가의 작업의 일환으로 기록함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소통의 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작가 이행준과 변재규의 공동작업 제안(2013년)



변재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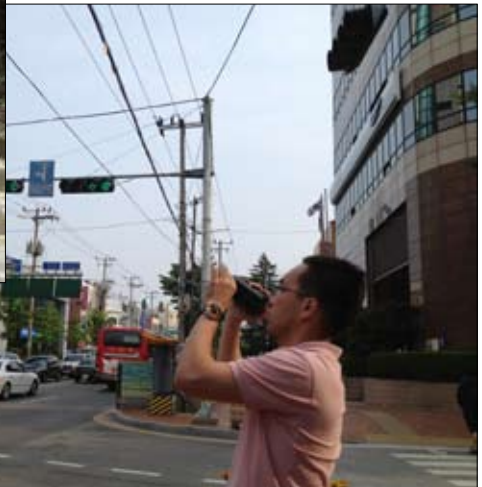
〈기억과 증명〉 프로젝트 PART 2

寫眞測量



1. 작가 변재규 작품 감상_랜더링프로그램.5월 초_예술공간돈키호테
2. 레지던스 초청(부산)
3. 작가와의 순천 답사/작업 구상





작가 변재규의 현장 작업 모습





4:3_그곳, 4:3 single channel, 2012



변재규 작가의 부산 개인전 자료_부산방문_변재규 작가의 소개로 부산 모퉁이 극장 측과 지역교류 협의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

〈기억과 증명〉 프로젝트 PART 3

지신은 불완전하게 올라온다

한류가 서양의 핵심 프로젝트
2012.6.9 (Sat) pm 8:00-
artspace Donquixote
예술공간 돈키호테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I confess my faith

<http://www.art5013.net>



1. 서영란 작품 발표. 6월 9일
_예술공간 돈키호테
2. 공연모습
3. 공연 후 작가와의 대화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_잊혀진 춤과 소리를 찾아서_관계자 인터뷰(국악 정동준 선생, 순천대 국문과 교수 김 용찬, 순천 삼설양굿 기능보유자 박정자 님)



순천, 남원, 진주를 오가며 민소리와 전통춤이 극장무대로 옮겨지기 전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극장예술이 되기 위해 변화된 혹은 창기된 형태를 이전과 종과 소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바탕에는 어떤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남원향교의 박경자 선생님은 "좋은 별칭을 정하는 것 자체가" 라고 하셨다. 옛 어른들은 춤을 배워서 함? 배우는다는 의미를 하셨다. 공연에서 이뤄진 춤을 재해석하는 우리. 다과 춤은 속춤이었다. 공복진 상생남에서는 태번 다른 실물을 주셨다 한다. 배가 오면 다리고 장소가 다르면 달라지는 춤. 춤을 창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태를 팔 수가 없고 역사와 유물로 남을 수 없다. 진주교방의 여가학 기술이었던 김수악 선생님은 고기요리 실물을 주셨다 자연모드가 되면 차마려를 넣고 콩과리를 차셨다. 그 춤을 성의 현 안에서 관객이 행위를 둘러싸고 흐르는 기운을 교환하는 것. 그 이전의 근원으로까지 기술을 라운드. - 만무 서영란 -

창제 혹은 연행자가 연행하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장소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연행자가 기어 장소에 대한 구별을 하고 창작하는 창안중이 이 연행에 간접적 체험을 둘러싼 공간을 다시 다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정관정도 살펴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공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 공간은 텍스트 속의 허구와 공간이거나 유 혼행기처럼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거나 수증기처럼 정지적인 공간으로도 만들어진다. - 소리 노은실 -

지신은 불완전하게 올라온다

2012 artplace DONKIHOTO RESIDENCE program

기억과 증명
memory
and
evidence

2012
예술공간 돈키호테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아티스트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
발표공연
2012.11.24.(토) 오후4시~6시
순천향교
(순천시 금곡동 182)

문의
예술공간돈키호테
061 754 8013
mhooor33@daum.net
<http://www.art8013.net>



- * 공연 후에 관객과의 대화시간을 가집니다.
- * 공연입장료는 자유기부제입니다.
- * 공연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주신 순천향교 측에 감사드립니다.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 발표공연(11월 24일) 순천향교 <지신은 불완전하게 올라온다> 홍보엽서



지역연계 프로그램

매체예술교육프로그램

강사: 이행준+서진화

순천 기적의 도서관(1회교육)

피플미술학원(2회교육)

지역기반 예술가그룹 사이다(간담회)



이행준 매체교육_필름 스크래치 표현

1. 교육 참가 학생들에게 필름의 구조와 영사 원리를 설명하는 모습(7월_피플미술학원)
2. 교육 참가 학생들이 스크래치한 필름을 이어 영사기로 돌려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7월 피플미술학원)



이행준 매체교육+워크숍

1. 영화의 초기 역사와 초기 애니메이션 작품의 감상 및 설명 (피플미술학원 수업은 2일/2회로 진행됨)
2. 지역 작가와 함께 초기 영화/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작품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 (7월_예술공간 돈키호테)



서진화 매체교육

1. 순천 기적의 도서관 매체교육 모습(7월 27일)
2. 서진화의 초기 애니메이션 제작수업
3. 이행준의 필름 스크래치 표현수업



서진화의 초기 애니메이션 제작수업_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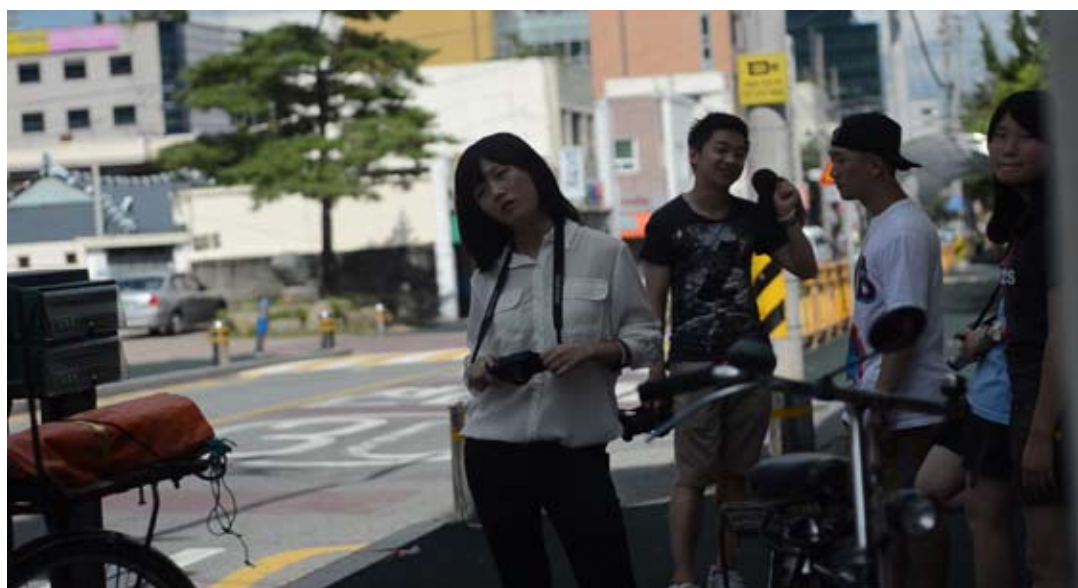
1. 자신이 그림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호기심있게 바라보는 아이들
2. 수업 작품 감상 및 평



서진화 매체교육_피플미술학원

1. 기구 설명 중
2. 작업 중
3. 본인 작품을 확인하고 있는 학생들





서진화 두번째 매체교육_피플미술학원

1. 학원 밖에서 과제를 수행중인 학생들
2.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의 감상

* 2012 <기억과 증명> 주요 진행과정_일지

- 4월27일 : 작가 이행준 작품 상영회/토크_예술공간돈키호테_〈랜더링프로그램〉
 - 5월4일 : 작가 변재규 작품 상영회/토크_예술공간돈키호테_〈랜더링프로그램〉
 - 5월6일 : 지역답사, 순천화포, 작가 이행준, 서영란 참석, 박혜강, 이명훈 안내
 - 5월19일 : 작가초청 관련미팅, 부산시립미술관, 작가 변재규, 박혜강, 이명훈 부산 방문
 - 5월25일 : 작가 변재규 순천답사, 동행안내, 순천원도심-죽도봉공원-동천변
 - 5월29일 : 작가 이행준 순천답사, 기적의 도서관 등(기적의 도서관 관장님과 매체교육관련 미팅)
 - 6월1일 : 레지던스 세미나 관련 상상문화발전소1839 측과 공동주최 건으로 협의, 예술공간돈키호테
 - 6월8일 : 서영란 공연(발표)준비, 리허설, 변재규 현장작업(순천문학관, 순천만 일대)
 - 6월9일 : 서영란 공연발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공연후 작가토크, 예술공간돈키호테
 - 6월10일 : 서영란 순천답사(원도심, 죽도봉공원, 연자루 등), 동행안내
 - 6월16일 : 이행준 현장작업_순천 화포에 필름문기
 - 6월17일 : 이행준 현장작업_드라마세트장, 순천문학관 답사
 - 6월 22일 : 영화〈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필름발굴 문제로 순천시의회와 미팅
 - 6월28일 : 이행준+돈키호테 공동리서치 : 지역극장관련 지역작가 서남수 선생 인터뷰
 - 6월29일 : 이행준+돈키호테 공동리서치 : 지역극장관련 지역작가 3인 초대 인터뷰, 이행준 현장작업
 - 6월30일 : 이행준+돈키호테 공동리서치 : 지역극장관련 지역 사진가/사진관 촬영/음악다방DJ인터뷰
 - 7월1일 : 이행준 매체교육 관련 지역작가 미팅, 작품제작 아이디어 교류
 - 7월5일 :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 회의
 - 7월6일 :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_지역 국악계 정동진 선생 인터뷰
 - 7월7일 :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_삼설양곳 박경자 선생 방문인터뷰
 - 7월7일, 7월8일, 7월19일 :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진주, 남원, 서울)
 - 7월20일 : 서영란+노은실 공동리서치_순천대 국어학과 교수 김용찬 교수 연구실 방문조사
 - 7월21일 : 변재규 현장작업, 낙안읍성, 순천만 등
 - 7월26일 : 이행준 순천화포 작업(필름 수거), 서진화 매체교육 관련 준비회의
 - 7월27일 : 이행준+서진화 지역연계매체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기적의도서관, 피플미술학원 1회차
 - 7월28일 : 이행준+서진화 지역연계매체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피플미술학원 2회차/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회
 - 7월29일 : 이행준 현장작업, 순천시내
 - 8월24일 : 변재규 현장작업, 드라마세트장
 - 8월25일 : 변재규 현장작업, 순천시내, 야간촬영/소식지 1호 <묘책> 발행
 - 8월30일 : 이행준의 초대로 서울국제실험영화제 참석(박혜강 대표)
 - 9월15일 : 레지던스 중간점검 미팅_변재규, 서영란, 노은실 참석
 - 10월8일 : 서영란, 노은실, 순천 삼설양곳 박경자 선생 인터뷰를 위해 자택 동행방문
 - 10월9일 : 영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상영회 _2013년도 지원 결정 (상상문화발전소1839와 공동주최)
 - 10월12일 : 작가 변재규 부산 개인전 방문/변재규 작가의 소개로 부산 모퉁이 극장 측과 지역교류 문제로 미팅
 - 10월15일 : 소식지 2호 <묘책> 발행
 - 11월11일 : 부산 모퉁이 극장과 지역교류 문제로 2차 부산 방문 미팅
 - 11월22일 : 레지던스 지역교류 세미나 개최(주최_전남문화재단, 공동주관_예술공간돈키호테, 상상문화발전소1839)
 - 11월24일 : 서영란+노은실 작품발표(자신은 불완전하게 올라온다)
- (앞으로 일정)
- 12월: 1일~12월 말 : 작가 변재규, 이행준 작품발표, 소식지 3호/4호 발행/작가-비평가 프로그램

ARISE AND CONQUER

- **edonol** : 에도놀 (치통제, 진통제) 사용
- **가비펜산** : 가비펜산의 전구체를 말한다. 아세트산
- **제2진산 제1진산 (1)** : 흡입기가 아세트산을 말한다. 흡입기+아세트산
- **제2진산 제1진산 (2)** : AcOH 유도체, 알코올, 아세트산, 아세트산
- **제2진산** : 제2진산-아세트산-아세트산-아세트산

[illegible]

부록

국내 레지던스의 현주소를 묻다/묘책1호,2호/글_이명훈

| 기획특집 |

국내 레지던스의 현주소를 묻다(1)

예술공간 돈키호테는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비단 전남문화예술재단만이 아니라 타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히 ‘레지던스의 전국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레지던스 사업을 되짚어 보면서 돈키호테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외국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의 도입?

레지던스(residence)란 특정 장소나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 또는 그러한 거주-체류 시설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이 용어는 숙박업이나 부동산 시장 쪽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줄임말로 먼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에는 외국의 투자자와 비즈니스맨들의 유입이 증가했다. 단기 출장에서부터 중장기 출장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체류 기간 동안 먹고 잘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들은 점차 값 비싼 호텔 투숙보다는 경제적이면서 쾌적한 숙박-주거 시설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낯선 한국의 임대주택 계약이나 생활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 거주 의 고층과 수요를 부동산 시장이 간파했다. 이들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레지던스였다. 레지던스 주거문화에 친숙한 외국인에게 이 상품은 먹혀들었다. 영어로 소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운영관리자를 두면서 방 청소를 비롯해 건물관

리 등의 기본 호텔식 서비스는 물론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 체험, 단체관광, 요리 교실, 파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이름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실내에는 필요한 전자제품, 가구, 취사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사생활이 철저히 보장된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합친 레지던스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를 위해 도입된 주거형태였던 것이다 (2007년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북 유명 레지던스 투숙객의 80%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더 늘었다. 월드컵의 성공으로 외국의 투자자나 기업인들이 한국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앞 다투어 레지던스를 지어 공급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레지던스는 외국인의 고급 거주시설로 국내에 인식되었고, 이러한 상징성은 돈 좀 있는 국내인에게도 어필되기 시작했다. 레지던스는 하나의 부와 결합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유통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내 유명 인사나 부자들, 사업차 출장 온 지역 비즈니스 맨, 화

려한 싱글족 등 맞춤형 레지던스도 생겨났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레지던스를 준호텔급의 숙박시설로 이해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레지던스는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오피스텔이 1~2년 장기임대 방식이라면 레지던스는 월 단위의 임대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 호텔처럼 하루 단위로도 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레지던스가 필요한 예술가?

그렇다면 예술 쪽에서 말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살펴보자. 예술 분야에서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줄임말로 ‘레지던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레지던스가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된 외국의 사정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레지던스라는 개념이나 그 발전사가 명확히 소개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용어가 곧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작가입주프로그램’이나 ‘창작스튜디오’라는 용어로 2000년을 전후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예술계에서 레지던스라는 용어를 비교적 널리 알리게 된 것은 2001년 들어 쌈지스페이스가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부터일 것이다. 2000년 (주)쌈지는 홍대 부근에 쌈지스페이스를 설립하고 10개의 스튜디오 오픈을 국내외 작가에게 제공하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쌈지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었으며, 입주 작가들에게 작업 및 거주가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을 포함해 건물관리비, 오픈스튜디오 전시, 오픈스튜디오 도록제작 및 홍보를 지원했다. 주방, 샤워실,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작품제작비, 여행경비, 식비 등의 개인적 지출은 작가부담으로 정했다. 쌈지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실험적인 작업 활동을 하는 신진작가의 발굴과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향후 국내 레지던스의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트레지던스도 호텔식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작가에게 주거 겸 작업공간을 제공하면서 전문적인 운영관리자를 두고 입주 작가에게 다양한 창작 및 거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해도 무

관하다. (그러나 비즈니스 관점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아트레지던스’라고 부르도록 해보자.)

사실 아트레지던스의 출현도 앞서 언급했지만 세계화에 따른 국제교류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이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든 예술창작 또는 문화교류를 위한 것이든 세계를 무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간의 유목적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김홍희 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그녀는 2008년 문을 닫을 때까지 쌈지스페이스의 디렉터이기도 했다)은 2010년 8월 경기창작센터에서 열린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포럼>에서 “아트레지던스의 본질은 국제교류”라고 말하면서, “한 세기 전 독지가들에 의해 시작된 아트레지던스는 초기에는 예술가들의 유토피아적 은둔지로 기능하였으나 현대로 오면서 유목민 정서로 작업하는 코스모폴리탄 작가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레지던스 자체가 이동 프로젝트의 기제인 바, 이런 점에서도 아트레지던스는 정박형의 제도적 뮤지엄의 대척점에 위치하면서, 타문화와의 교류 및 소통의 매신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한바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일반 외국인을 상대한 것처럼 아트레지던스도 김홍희가 언급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작업하기를 원하는 외국 아티스트를 염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레지던스=창작스튜디오?

반면 1998년부터 정부는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국내) 미술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1998년부터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해, 2006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총 29개소가 설립되었다.

창작스튜디오를 언급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또는 ‘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등식이 널리 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이 레

지던스와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것인지는 좀 더 비교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레지던스를 창작스튜디오로 번역하고 수용했는지 짚어 볼 문제이지만, 현재 진행형인 창작스튜디오 조성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포괄적 개념이 운영자나 참가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시각예술 정책포럼>에서 당시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이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오랜 역사와 프로그램을 지닌 외국의 경우에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교류와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창작활동의 활성화 및 전파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는 그가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의 지원 정책과 문제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점.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유망한 미술가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특화된 미술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건립목적도 다르며, 지원도 들쭉날쭉하고,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적 운영의 부실을 안고 있다.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

도 없어 대안공간적 성격으로 운영되거나 미술관 부설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희와 양건열의 진술을 통해 레지던스와 창작스튜디오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를 정리해보자면 레지던스를 창작을 위한 거주 공간/시설로 해석하기 보다는 교류를 위한 거주 시설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레지던스 사업은 창작활동보다는 상호 교류 활동이 더 중시되는 것으로 창작에 전념하고 싶은 작가들에게는 창작스튜디오를, 새로운 창작을 위한 교류이든 기존 창작 성과물의 교류이든 교류를 필요로 하는 작가들에게는 레지던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지던스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창작스튜디오와 다르게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작업공간과 작품발표 지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입주 작가들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문화적 교류, 작가들 간의 교류, 작가와 지역의 교류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글_이명훈
(다음 호에서 계속)

국내 레지던스의 현주소를 묻다(2)

요책 1호에서 레지던스가 국내에 어떤 배경에서 정착했는지와 외래어인 Residence의 정체성에 대해 국내는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아트 레지던스=창작스튜디오’라는 번역에 따르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짝 짚어보았다.

창작공간, 레지던스의 허상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역사가 오래된 외국의 레지던스도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 국내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생적이어야 할 민간부분 아트 레지던스와 적지 않은 공적재원이 투입된 국공립 레지던스 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관주도의) ‘압축성장’이란 것이 창작스튜디오 분야에서도 드러났고, 그것의 문제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 10년 사이 국내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의 성장을 볼 때, 썸지스페이스 폐관이후, 창동과 고양에 설립된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의 등장 이후로 국내 레지던스의 지형도는 국공립 레지던스가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반론할 수 있다.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예술가이고 한국예술계가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좋은 건, 오늘의 현대미술계는 지독하게 제도화됐다. 질과 무관한 실적을 거둬야 하는 기관이 태반이니, 작가 선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작품의 우수성으로 작가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외의 요소로 작가를 선별하게 되는, 소위 ‘안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역시 문제는 그 정도에 달렸다. 이렇게 ‘기관의 거래’가 일상화된 덕분에, 오늘날 젊은 작가들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무한 반복하는 중이다.” (미술비평가 임근준, 경기문화포럼 3 자료집에서)

“지금의 창작공간은 때로는 과다하게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조 받고 때로는 겉치레로 존재한다. 사회 지자체에서 창작공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가 지역재생 같은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형 사업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간 특화를 위해 지역에 기여하고 연계해야 하는데 그것이 작가들이 생각하는 창작센터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다. 창작보단 공공적 기여 등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예술경영 2011에서)

“10여년이 지난 지금 창작공간이나 레지던스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국가, 지자체, 사립미술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은 시설도 최상급으로 변화되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모두 크게 진화한 것이다. 다만 공간의 진화와는 달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하는 행정기관들의 이해력과 사고방식은 오히려 변질되어 성과주의 중심의 행정 잣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술지원 사업이라는 특성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의 운영 중심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최관호, @예술경영2011에서)

문제는 이런 것이다.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체수가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는데, 그 열풍의

실체는 관(□)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순수창작 지원보다 예술의 공공성이나 예술을 통한 지역 연계개발이나 도시재생 등의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입주 예술가들에게 그러한 과중한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창작공간이나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의 출발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또는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인식되는데, 최근에 그것이 확장되었다면 확장된 것이고 변질되었다면 변질된 것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여나 소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술이 개인의 창작 개념 말고도 사회와 정치, 경제 분야에 예술이 기여하는 점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를 단기간 입주나 거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성과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형식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예술의 공익성을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개념을 중시하고 비물질성을 다루는 현대의 예술가들에게는 특히 성과나 실적은 그야말로 자기 무덤 파기식이다. 결국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예술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만큼의 성과, 그만큼의 실적을 만들어 낸다는 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그 변화를 지켜보고 그 과정 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인식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함께 하고 기다려주기란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적정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알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소위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또는 협력이 필요하다. 참여 전문가들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사기만 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대개 어떤 새로운 유형의 예술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총대를 메고

지자체가 그것을 뒤쫓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붐 (또는 부정적으로는 ‘거품’ 이라고 말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재생산’ 이라고 부른다. 반면 행정에서는 ‘파급효과’ 로 부른다)을 형성하는 것은 수가 많은 지자체들이다. 공공미술이 그랬고, 문화재단이 그렇고, 비엔날레가 그렇다.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이란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다.

중앙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베끼고(전문용어로 벤치마킹),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베낀다. 베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참조나 참고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다만 참조하라, 참고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례를 잘 살펴서 생각해보라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베끼라는 의미가 아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참고, 참조하라고 보여주는 자료를 베끼고 자빠지면 그 정도가 실력이고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베껴야 한다면 제대로 베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레지던스의 개념과 유형정리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호에서도 지적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레지던스의 개념과 내용이다. 개념과 내용이 분명치 않거나 일치하지 않았을 때, 흔히 동상이몽이 되어 그 평가가 엇갈리게 마련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 <국내외 국제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정책대상으로서 기존에 사용해 온 ‘예술창작스튜디오’, ‘예술촌’, ‘예술창작촌’ 등은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개념이며 ‘레지던스’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 개념으로써 ‘레지던스’를 언급할 경우 ‘창작스튜디오’로 가급적 통일하고,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할 경우, ‘레지던스’가 아닌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통일하여 명칭하는 것이 더욱 명확할 것이다.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가 거주(레지던스)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스를 혼동하여 사

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작가 거주와 관련된 사업들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면 예술위원회의 정책대상이 좀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연구보고서 77쪽)

보고서에서는 레지던스를 공간 개념과 프로그램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그 유형을 레지던스 운영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했다.

우선, 초청 대상이 되는 예술가들의 지역적 범위가 국내중심 인가 아니면 국제적 인가에 따라 크게 ‘국내(로컬, local) 레지던스’와 ‘국제(인터내셔널, international) 레지던스’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레지던스’ 유형으로는 ‘교류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 ‘지역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 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내와 국제 레지던스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레지던스의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 운영 주체인 ‘국립형 레지던스’, 지방정부나 지방재단이 설립 및 운영 주체인 ‘공립형 레지던스’ 그리고 민간단체나 사설문화공간 혹은 기업이나 개인이 설립 및 운영주체인 ‘민간형 레지던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 장르에 따른 구분도 가능한데 크게 ‘문학레지던스’, ‘시각예술레지던스’, ‘공연예술 레지던스’ 그리고 ‘통합장르형 레지던스’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술위의 보고서에서 소개된 유형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창작 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 대부분의 ‘예술촌’ 혹은 ‘창작스튜디오’의 설립목적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초청자가 예술가에게 절대 필요한 창작공간을 지원한다는 창작스튜디오 원래의 취지에 따라 소위 ‘거주하는 작업실’이라 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 일반적인

로 ‘레지던스’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친 자연 환경적 공간이나 탈일상적인 공간에 거주하면서 진행되나, 굳이 거주가 필수조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개별 프로젝트의 사안과 주제에 따라 예술가들이 프로그램 기획자를 중심으로 모여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형태를 말한다.

3) 교류 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 예술가들을 초청한 후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작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초청 작가들, 혹은 관련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지역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국제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 폐교나 재래시장 등의 지역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와 지역민 등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레지던스 유형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한다.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연예술 레지던스 디렉토리』에 따르면 다양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국내외 레지던스를 (1)예술가 거주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제공내용으로 숙박 및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2)지원금을 지급하는 레지던스, (3)프로젝트 중심형 레지던스, (4)예술가들이 작업의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예술가 리트릿(artist retreats), (5)오픈스튜디오나 공연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어린이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는 레지던스, (6)창조적 도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레지던스, (7)지역예술가와 해외예술가의 교류를 주도하는 레지던스, (8)해외기관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교류를 추진하는 레지던스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다소 시각예술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국내 레지던스는 2007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공연분야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확장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에는 시각예술분야, 문

학분야를 비롯해 무용, 연극, 음악 등의 공연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성격의 레지던스 공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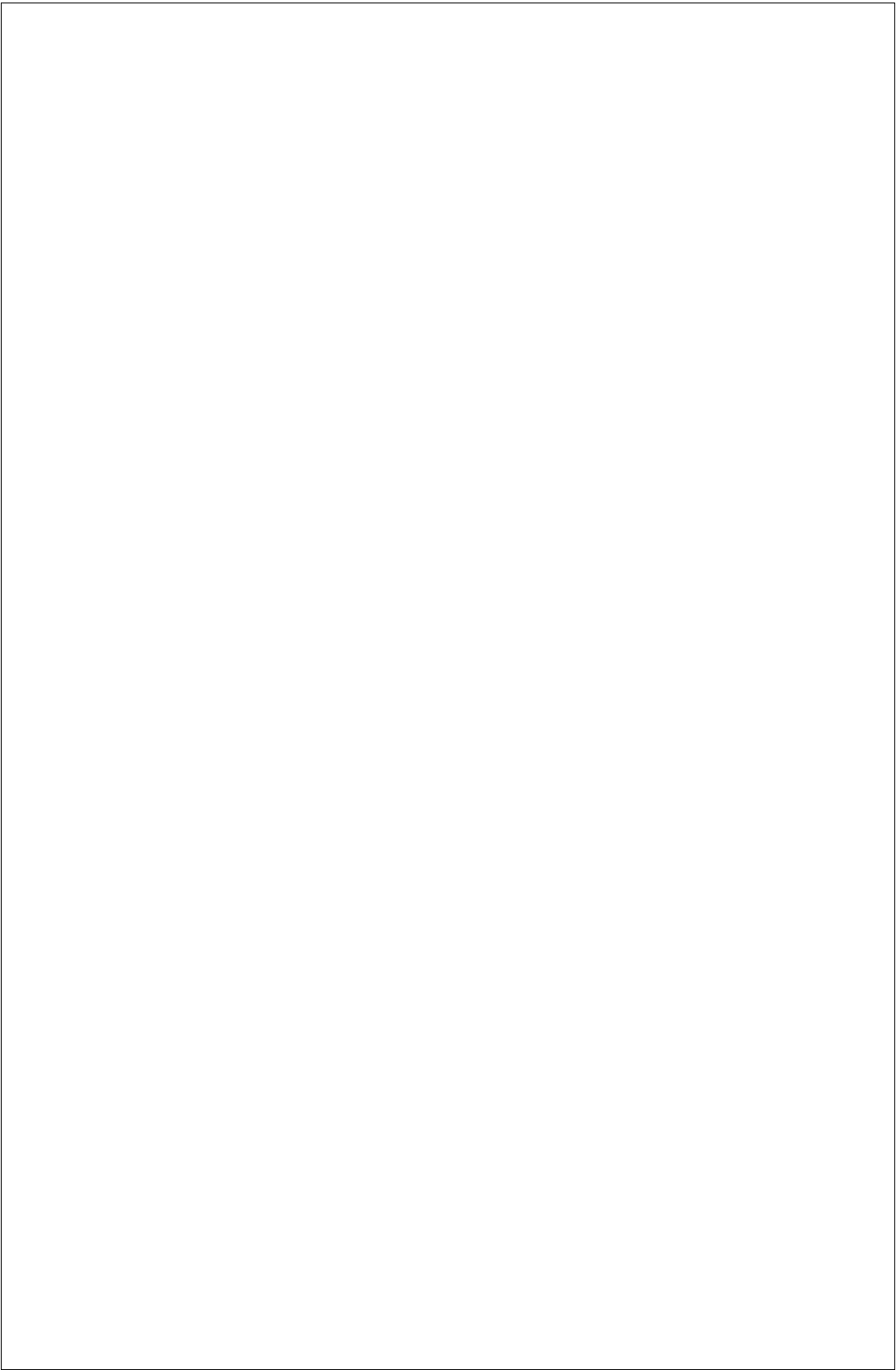
지역 레지던스와 지역과의 연계성

지난 호에도 언급했지만,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경기문화포럼> 가운데, <포럼 3: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은 국내 레지던스의 현주소를 찾기에 가장 적절한 텍스트라고 생각된다.(포럼 1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을 다뤘으며, 포럼 2에서는 경기도 내에 분포해 있는 대안공간의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다).

2010년 8월 국내 최대 창작공간 시설로 알려진 경기창작센터에서 열린 포럼3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대안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무자들을 비롯해 미술평론, 큐레이터들이 상당 수 모였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다음 호에서 계속)

■ 글_이명훈



2012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역교류세미나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방향과 방법들

사회_박혜강(예술공간돈키호테 디렉터)
초청패널_
백종옥(익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조승기(광주 미테-우그로 디렉터)
이상훈(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디렉터)
지성배(순천 상상문화발전소1839 디렉터)
이명훈(순천 예술공간돈키호테 큐레이터)
지정토론_
허명수(순천, 작가)

전남문화예술재단
061 280 5812
chosun03@hanmail.net
<http://www.jncf.or.kr>

예술공간돈키호테
061 754 8013
mhoon33@daum.net
<http://www.art8013.net>

일시 : 2012.11.22.(목) 오후2시~6시

장소 : 예술공간 돈키호테(전남 순천시 금곡길33,2층)



주최: 전남문화예술재단
주관: 예술공간돈키호테,상상문화발전소1839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역교류세미나 자료집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방향과 방법들
